

# 전국 최초 시내버스 결행정보 제공

### 전주시,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위해 결행 발생시 버스도착안내단말기에 표출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멈춰선 시내버스의 결행 정보를 안내한다.

시는 차량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결행 발생시 버스승강장 내 버스도착정보안내단말기(BIT)에 결행정보를 표출하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상대적으로 긴 노선의 경우 결행이 발생할 경우 배차간격의 두 배 이상을 마냥 기다려야 했지만, 결행정보가 제공되면 대체 교통수단 이용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순한 차량 사고 이외에도 폭우와 폭설, 수소연료 부족,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결행 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시는 최근 발생한 수소연료 부족으로 인한 수소시내버스 투입노선의 결행 발생시 웹 대자보 형식밖에 결행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없었지만, '시내버스 결행정보' 제공 서비스가 정식 실시되면 버스도착정보안내단말기(BIT)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배차시간이 긴 노선부터 '시내버스 결행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으로, 내년까지 배차간격이

짧은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에 결행정보 제공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시내버스 결행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7000만 원을 투입해 버스정보시스템 도착정보 개선사업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결행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용한 시내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 교통정보 서비스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 조촌동, 안전한 마을로 변신한다

### 시, 조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

집중호우시 주택가의 침수 위험이 높은 전주 조촌동 일대가 안전한 마을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조촌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우수관로 개량 등 각 방재시설별로 관리주체가 달라 풍수해 피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통합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효과도 높일 수 있어 효율적인 재해예방이 가능해진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는 내년 부터 향후 5년간 국비 220억 원 등 총 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해 △조촌천

정비 1.8km △우수지 및 펌프장 1개소 △배수로 정비 1.5km △우수관로 개량 2.7km 등 조촌천 일원(반월동, 장동, 용정동) 마을 및 주택가 침수위험지역의 항구적인 재난피해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조촌지구 외 3개 지구(총사업비 1238억 원)에 대한 재해예방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전주 지역 5개 지구의 사업규모(728억 원)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분야별로는 내년도 전주지역에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개 지구 12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개 지구 49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개소 16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개지구 30억 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개소 3500만 원으로, 총 9개 지구의 내년도 국비 지원 규모는 106억 원에 달한다. /김재훈 기자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평화동 일원의 침수 예방을 위해 공모사업에 도전해 168억 원 규모의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총사업비 265억 원을 들여 추진한 '진기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국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침수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예산을 확대·투자해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전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재난없는 전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수소시내버스 노선 정상화

원활하지 못한 수소공급으로 인해 약 1달 간 감속 운행돼온 전주시내버스 노선이 정상화됐다.

전주시는 수소시내버스의 충전 제한으로 인해 지난달 중순부터 시행해온 전주시내버스 노선 감속 운행이 지난 18일부터 종료돼 현재 전 노선에서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수소시내버스 충전 제한은 여수·군산지역 수소공급 증설공사로 인해 수

소공급이 제한된 데 따른 조치로,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수소시내버스 운행 23대 중 5대만 운행(18대 감차)하고, 이달 초부터는 수소공급이 일부 원활해지며 11대를 운행(12대 감차)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소공급이 원활해지면서 현재 전 노선에서 수소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시는 수소공급이 정상화된 만큼 울

하반기 예정된 수소시내버스 23대 출고 및 평화동 수소충전소 준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친환경 수소시내버스는 차내의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어 승차감이 좋고, 도입 차량 모두 저상버스여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향상 시켜왔다.

특히 버스 운행 시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오직 물만 배출하면서 다량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움직이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전주시와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1일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전주시역 400여 명의 사회복지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전주시·시 사회복지협의회,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주시가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회복지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시와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형석)는 21일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전주시역 400여 명의 사회복지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행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온 사회복지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시는 홍민석 호성보육원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일해 온 사회복지 유공자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전주시장 표창 10명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 3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1명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3명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3명이다.

이와 함께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사회복지 봉사자 대표의 '사회복지 윤리선언'과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김형석 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주는 사회복지인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린다"면서 "민·관이 서로 협력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따뜻한 동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전주를 위해 사회복지 현장 곳곳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사회복지봉사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전주시도 복지 안전망 강화와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일상에서 다함께 누리는 신바람 나는 복지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하는 법정 기념일로, 시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주시역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인을 격려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심의·의결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권(세종시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등 41곳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등 시장 안정 요인이 증가한데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

대 및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전주시 전역은 1년 10개월 만에 주택법에 따른 각종 부동산 거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일은 오는 26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금융·세제·청약·분양권 전매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시는 내다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 지역의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15일과 지난 6월 두 차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으로 전주시 지역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매매거래량,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